

중국과 한국 20대 여성의 체간부 신체치수와 체형 비교 분석

장희경 · 손희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Comparative Analysis of Torso Measurements and Types of the Chinese and Korean Women in their 20's

Chang, Hee-Kyung · Sohn, Hee-Soon*

D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accelerated urbanization, numerous cities in China have been turning into huge consumption markets almost simultaneously, and thus, the Chinese apparel markets being globalized are most vigorous in the world,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world apparel industries. If the Korean apparel businesses should develop the products befitting the conditions of the Chinese apparel markets and reflecting her consumers' fashion trends and needs, their apparels would be satisfactory enough to Chinese consumers, being competitive in the Chinese markets. In this sense, today's Chinese apparel markets may well provide the Korean apparel businesses with both crisis and opportunity. As one of the methods to enhance Chinese consumers' satisfaction with the Korean apparels, the Korean apparel businesses should consider seriously about the apparel fitting or a factor determining apparel silhouettes and sense of wearing. Since Chinese consumers differ widely in terms of body types and measurements depending on regions due to the vast territory, differentiation of the apparel fitting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single factor, and thus, correct information about apparel fitting may well be directly related with manufacturing of excellent appare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upper body measurements and types of the Chinese and Korean women in their 20's to provide the Korean apparel business engaged in Chinese markets with some basic data about apparel fitting conducive to their development of effective apparel commodities. For this purpose, Chinese women in their 20's living in China's two major cities leading China's women's apparel markets were sampled.

Key Words : torso(체간부), comparision of body type(체형비교),
Chinese women(중국여성)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2007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됨(과제번호 : 2007-511-C00089)

Corresponding author: Sohn, Hee-Soon, Tel.+82-10-9988-9461, Fax.+82-2-710-9461
E-mail: pattern@sookmyung.ac.kr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중국은 13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국가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러 전 세계가 주목하는 21세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적인 급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소득수준 증대, 교육수준 향상, 생활수준 개선 등으로 평균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비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수많은 도시들이 일시에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는 중국 전체 평균보다 4.7배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고 북경, 심천, 광주, 항주 등 대도시와 더불어 소비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07년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글로벌 중국 브랜드’ 육성책의 일환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가격경쟁력에 비해 중국 상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내 자국 브랜드를 지원하고 있다. 근래 중국의 문화코드는 ‘중국적 가치의 재발견’으로 일상제품에서도 중국풍을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고도 경제성장과 올림픽 유치 같은 쾌거가 중국인의 자존심을 북돋우고 있으며,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의 소비봉을 일으키고 브랜드 충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¹⁾

중국 의류시장은 세계 제일의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발빠른 변화의 글로벌 시장으로 패션 브랜드의 경쟁적인 매장 오픈, 상장,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소재와 디자인 창의성에서 글로벌화가 강조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의류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소비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소비의 주체가 되는 2억명의 도시 중산층과 함께 바이링허우(八零後)세대들의 소비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새로운 차세대 소비층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의 20대 바이링허우(八零後)세대는 1979년 덩샤오핑이 산아제한정책인 ‘독생자녀제도

(獨生子女制)를 시행한 이후인 1980년부터 태어난 외동아들 또는 딸로서 가족의 과보호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환경문제, 이주노동자인권문제, 지방정부 부패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식을 가진 세대로 주요한 고객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개발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²⁾

한편 중국의류시장의 국제화 과정에 따라 여성복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세를 나타내 여성복시장은 2008년 29.8%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복시장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브랜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과거의 저가경쟁에서 스타일, 유행, 판매환경 등 종합요소의 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 중국진출을 기획중인 의류기업은 이러한 산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비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류기업들은 재고상품의 소진을 목적으로 중국 의류시장에 진출하였으나, 패션 선진국의 의류시장 선점과 중국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의 부재 등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에 실패하였고, 2000년 이후 또다시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하였으나 국제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국 내수 국내기업들이 성숙하고 강대해짐에 따라 대다수 진출기업들은 정착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전히 고전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금융 위기와 심각한 경기침체의 와중에서도 세계 의류시장의 글로벌화 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의류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재개편을 시도하며 생존의 길을 모색 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중국 현지 시장의 현황과 소비자의 패션 동향 및 욕구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여 한국 의류제품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면 오늘날 중국 의류시장은 한국 의류기업에게 있어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제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의복 실루엣 및 착장감 등을 결정하는 요인인 의복 맞춤새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중국은 광활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체형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동안 한국 의류기업들은 단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의복맞음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생산단계에서 적절히 반영시키지 못하였고 정보수집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국내수용 한국의류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의류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획·생산단계의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디자인뿐 아니라 맞춤새 관련 체형정보에 대한 연구자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광활한 지역적 체형특징 차이가 심하므로 제품의 맞춤새 차별화가 어느 곳보다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새 관련 정보의 제시는 곧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과 직결된다고 본다.

중국 의류소비의 주체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거나 현지화작업을 서두르는 한국 의류기업의 경우 여성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디자인 및 체형 정보의 확보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성인여성의 체형은 연령별, 지역별로 그 차이가 뚜렷하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치수 및 형태 적합성이 우수한 제품생산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본연구자들은 중국 성인복의 맞춤새와 관련된 신체치수 및 체형정보, 소비자 실태 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체형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⁴⁾⁵⁾⁶⁾⁷⁾⁸⁾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의류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복업계의 주요고객인 중국의 북경 및 상해 거주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체간부의 신체치수 및 체형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20대 여성과 비교하여 중국 진출 한국 의류기업의 의류상품개발에 필요한 맞춤새 관련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도시 북경과 상해 거주 중국 20대 여성과 한국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체간부 신체치수 및 체형특징을 밝

히고자 한다.

1. 중국의 북경 및 상해, 한국 전체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20대 전반과 후반 2개 연령대 여성의 체간부 신체치수 및 체형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2. 중국의 북경 및 상해, 한국 전체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대 전반과 후반 2개 연령대로 나누어 각각 3개 지역 여성의 체간부 신체치수 및 체형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본 연구대상의 범위는 중국과 한국 20대 성인여성의 신체치수와 체형특징을 밝히고 그 차이를 비교고찰하여 중국 성인여성복 제작에 필요한 맞춤새 관련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연령과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연령의 선정기준은 인체 성장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 완성기에 해당하며 성인의 기본체형을 갖추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의 선정기준은 중국의 경우 거대한 중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중국 여성들의 준거가 되는 표준체형과 신체치수를 추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체형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행정도시인 북경과 경제 무역도시인 상해를 대표지역으로 한정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체형의 지역적 편차가 적으므로 한국 전체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중국 북경 및 상해지역과 한국 전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인체계측하여 수집한 체간부 신체계측치이다. 중국 인체계측자료는 2004년 6월~8월, 북경과 상해지역에서 본 연구자들이 직접 계측한 체간부 신체계측치이며, 한국 인체계측자료는 2003년 7월~2004년 7월에 시행된 2004년 제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에 의한 20대 여성 체간부 신체계측치이다. 2004년도 중국 측 자료 총 111개 계측항목 중에서 중국 20대 여성 체간부 체형 비교분석을 위해서 38개 항목을 추출하였고, 한국여성

과의 체간부 체형비교분석을 위해서는 2004년도 한국 측 자료에서 중국 측 자료와 일치되는 27개의 측정항목을 추출하였다.

분석자료로서 항목수는 중국 지역간·연령간 차이 비교를 위해 총44항목이 설정되었고, 높이항목(5개), 너비항목(8개), 두께항목(6개), 둘레항목(7개), 길이항목(9개), 각도항목(2개), 몸무게, 계산항목(드롭항목 2개·편평률항목 3개, 로러지수 1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측 자료는 제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자료를 토대로 27개 측정항목과 6개 계산항목을 포함하여 총 33항목을 설정하였고, 높이항목(3개), 너비항목(4개), 두께항목(4개), 둘레항목(6개), 길이항목(9개), 몸무게, 계산항목(드롭항목 2개·편평률항목 3개, 로러지수 1개)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표본은 인체계측자료 중 미비한 자료는 제외하여 중국의 경우는 북경지역 20대 여성 454명, 상해지역 20대 여성 421명, 한국은 전국지역의 20대 여성 814명이다.

표본추출은 무작위표본추출법에 의하였으며, 계측 방법은 마틴(R. Martin, 1942)의 인체계측법에 준하여 1997년 「國民標準體位 調査 報告書」⁹⁾를 참고로 하였고, 인체 계측시 기준점과 기준선은 KS A 7003(인체측정용어)¹⁰⁾와 KS A 7004(인체측정방법)¹¹⁾, 제 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¹²⁾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제품설계를 위한 한국 여성의 인체치수 데이터 자료¹³⁾를 참고하였다.

2. 연구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12.0을 사용하여 신체계측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중국지역과 한국지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로 체간부 신체치수와 체형특징을 밝히기 위한 자료처리는 첫째, 중국 북경 및 상해지역과 한국 전체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한 후, 각 지역별로 20대 전반(19~24세)과 후반(25~29세) 여성 2개 연령집단으로 분류하여 총 6개 집단의 신체계측치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고, 각 집단의 계측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전반과 후반 2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신체계측치에 대한 평균을 제시하고 계

측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으며 Duncan-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기술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북경 및 상해와 한국 20대 여성의 지역별·연령별 체간부 신체치수 및 체형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3개 지역의 20대 전·후반 연령집단별 체간부 신체계측자료 비교 결과

중국 북경, 상해 및 한국 각 3개 지역별로 20대 전반과 후반 여성의 체간부 체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역집단별(북경/상해/한국)-연령집단별(20대 전반, 후반) 신체치수 차이를 T-test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 북경지역 20대 여성

북경지역거주 20대 전반과 20대 후반 여성의 연령별 신체 치수 차이에 대한 T-test 실시 결과,

전체 44항목 중 23항목에서 연령집단별로 신체치수 차이가 나타났다.

높이항목은 5항목 모두에서 연령별 치수 차가 나타나고, 북경거주 20대 전반여성이 모든 수직길이가 컸으며 그 중 키(1.59cm)를 비롯한 젓가슴위치(1.16cm), 허리높이(1.11cm), 엉덩이높이(1.20cm)가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만정도를 나타내는 몸무게는 연령적 차이가 없었으나 키에 따른 비만도의 기준이 되는 로러지수는 20대 전반여성이 작게 나타났다. 북경지역의 20대 여성의 체형은 전체적으로 보통체형에 속하지만, 20대 전반에 비해 20대 후반 여성의 비만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간부의 너비항목은 5항목에서 연령적 치수 차이가 있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목너비·어깨가쪽너비는 20대 전반 여성이 크고 젓가슴주변의 너비는 대체로 후반 여성이 큰 치수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20대 후반 여성의 체간부가 미미한 차이로 약간 넓었다.

두께항목은 3항목에서 치수차이가 나타나 젓가슴 두께, 젓가슴아래두께, 허리두께는 20대 후반 여성이 전반 여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 상반신 두께가 두꺼운 특징을 나타낸다.

편평률항목은 허리편평률에서만 20대전반이 작은 값을 나타냈다.

둘레항목은 젓가슴둘레(-1.48cm), 젓가슴아래둘레(-2.03cm), 배둘레(-1.63cm)에서 20대 후반 여성의 치수가 더욱 큰 값을 나타냈다.

가슴부위와 허리부위를 중심으로 20대 전반집단에 비해 후반집단이 대체로 수평크기가 크고 두께가 두

꺼운 체형적 특징을 인지할 수 있다.

드롭항목은 엉덩이둘레-허리둘레의 경우 연령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대 전반 여성이 큰 값을 보여 연령별 차이가 인정되었다. 북경의 20대 여성의 체간부 신체치수 분석결과, 20대 후반 여성은 가슴의 발달정도가 크고 몸통이 넓고, 두껍고, 굵은 체형인 반면 20대 전반 여성은 키가 크고 가늘며 엉덩이부위는 크고 허리부위 치수는 상대적으로 작아 다소 잘록한 체형으로 분석되어 연령적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 북경·상해·한국 20대 여성의 연령별 신체계측치 비교 결과

단위 : cm

계측항목	계측부위	북경			상해			한국		
		20대 전반 (N=294)	20대 후반 (N=160)	T-test	20대 전반 (N=242)	20대 후반 (N=179)	T-test	20대 전반 (N=501)	20대 후반 (N=313)	T-test
신체 항목	키	159.28	157.69	3.09***	159.72	159.69	0.34	160.40	159.28	3.03***
	목앞높이	130.22	128.83	2.82**	130.82	130.75	0.43	-	-	-
	젓가슴높이	113.99	112.83	2.46**	114.48	114.34	0.65	-	-	-
	허리높이	99.30	98.11	2.87***	99.53	99.45	0.51	100.22	98.68	5.33***
	엉덩이높이	78.78	77.58	2.53***	78.96	78.84	0.59	78.37	77.37	3.76***
너비 항목	목너비	12.27	12.03	2.43*	11.94	11.72	1.83	-	-	-
	어깨가쪽너비	33.61	33.20	2.75**	33.92	33.77	1.08	-	-	-
	가슴너비	26.90	27.44	-2.66**	27.82	27.45	1.93	27.20	27.70	-3.92***
	젓가슴너비	25.93	26.32	-2.14*	26.12	26.02	0.50	26.87	27.51	-4.65***
	젓가슴아래너비	24.51	25.10	-3.35***	24.68	24.71	-0.28	-	-	-
	허리너비	22.60	23.02	-1.93	22.59	22.83	-1.22	23.59	24.52	-6.25***
	배너비	29.65	29.91	-1.14	29.20	29.39	-0.90	-	-	-
두께 항목	엉덩이너비	32.20	32.37	-1.12	31.75	31.72	0.27	32.39	32.46	-0.59
	가슴두께	18.40	18.48	-0.57	18.13	18.50	-2.44**	17.89	18.28	-3.44***
	젓가슴두께	21.68	22.11	-2.05*	21.33	21.91	-2.82**	20.66	21.34	-4.34***
	젓가슴아래두께	18.82	19.70	-4.31***	18.48	18.90	-2.44**	-	-	-
	허리두께	17.34	18.07	-3.31***	17.23	17.44	-1.09	17.27	18.46	-7.34***
	배두께	20.02	20.27	-1.12	19.48	19.72	-1.24	-	-	-
둘레 항목	엉덩이두께	20.38	20.23	0.71	20.15	20.06	0.15	20.84	21.19	-2.47*
	목밑둘레	37.39	37.13	1.53	36.30	36.41	-0.54	36.50	36.97	-3.13***
	가슴둘레	83.30	83.93	-1.20	81.44	82.47	-2.26*	81.93	83.82	-4.97***
	젓가슴둘레	84.34	85.82	-2.45**	82.66	83.24	-1.28	82.28	84.12	-3.97***
	젓가슴아래둘레	73.72	75.75	-3.49***	72.51	73.11	-1.45	71.48	73.44	-5.42***
	허리둘레	67.10	68.16	-1.33	65.53	67.02	-2.63**	67.11	70.41	-6.99***
	배둘레	81.16	82.79	-2.31*	80.91	82.39	-2.52**	-	-	-
엉덩이둘레	91.04	90.93	0.25	89.00	89.82	-1.83	91.31	91.61	-0.81	

*p<.05, **p<.01, ***p<.001

<표 1> 북경·상해·한국 20대 여성의 연령별 신체계측치 비교 결과

단위 : cm

계측 항목	계측 부위	북경			상해			한국		
		20대 전반 (N=294)	20대 후반 (N=160)	T-test	20대 전반 (N=242)	20대 후반 (N=179)	T-test	20대 전반 (N=501)	20대 후반 (N=313)	T-test
길이 항목	앞중심길이	33.19	33.01	1.00	32.96	33.19	-1.11	32.19	32.65	-3.08***
	목옆젓꼭지길이	25.23	25.81	-3.39***	25.08	25.22	-0.81	24.96	25.75	-4.88***
	목옆-젓꼭지- 허리둘레선길이	40.52	40.39	0.73	40.00	40.26	-1.27	39.72	40.47	-4.68***
	겨드랑위아래사이드길이	32.30	32.18	0.60	32.34	32.67	-1.70	32.24	32.34	-0.68
	젓꼭지사이수평길이	16.96	16.82	0.82	16.51	15.78	4.06***	17.27	17.58	-2.26*
	목옆어깨가쪽길이	12.38	12.39	-0.16	12.72	12.68	0.49	12.81	12.88	-0.86
	어깨가쪽사이길이	38.40	38.52	-0.48	39.14	38.85	1.40	39.71	39.90	-1.10
	겨드랑위아래사이드길이	36.48	36.72	-0.93	33.07	33.54	-2.12	36.36	36.84	-2.88***
등길이	37.56	38.00	-2.48**	37.32	37.53	-1.16	38.09	38.52	-2.75*	
각도 항목	오른어깨기울기	23.54	22.66	2.43**	21.19	20.80	1.13	-	-	-
	왼쪽어깨기울기	22.96	22.33	1.65	21.64	21.46	0.50	-	-	-
드롭 항목	젓가슴둘레- 허리둘레	17.23	17.65	-1.41	17.13	16.22	2.25*	15.16	13.70	6.52***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23.94	22.77	2.36**	-23.48	-22.79	-1.57	24.20	21.20	9.36***
편평률 (두께 /너비)	젓가슴편평률	0.84	0.84	-0.73	0.82	0.84	-3.83***	0.77	0.78	-1.74
	허리편평률	0.77	0.78	-2.68**	0.76	0.76	-0.20	0.73	0.75	-5.09***
	엉덩이편평률	0.63	0.63	1.47	0.63	0.63	-0.05	0.64	0.65	-2.39*
기타 항목	몸무게	52.85	53.58	-0.92	51.05	51.57	-0.78	53.62	54.97	-2.53*
	로러지수	1.31	1.37	-3.31***	1.25	1.27	-1.25	1.30	1.36	-4.81***

*p<.05, **p<.01, ***p<.001

길이항목은 2항목만이 연령별 치수차이가 있어 목 옆젓꼭지길이, 등길이가 20대 후반 여성이 큰 치수로 나타났다.

각도항목은 연령적 차이가 없는 왼쪽어깨기울기에 비해 오른쪽어깨기울기는 20대 전반 여성이 큰 값을 보여 오른쪽어깨가 더 처진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2) 상해지역 20대 여성

상해거주 20대 전반과 후반 여성의 연령별 신체치수 차이에 대한 T-test 실시 결과, 전체 44항목 중 9항목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나 연령집단별로 치수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상해의 20대여성은 높이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전반과 후반여성이 연령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몸무게와 로러지수 또한 연령적 차

이가 없었다.

너비·두께·편평률항목을 살펴보면 4항목에서만 연령집단별 유의차가 있었다. 너비항목은 연령적 치수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두께항목은 가슴두께·젓가슴두께·젓가슴아래두께에서 20대 후반여성이 다소 큰 값을 나타냈고 젓가슴편평률 역시 20대 후반이 큰 값을 나타냈다. 둘레항목은 3개항목만이 치수차이가 나타나 가슴둘레(1.03cm)·허리둘레(1.49cm)·배둘레(1.48cm)는 20대 후반집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대 후반여성이 전반여성에 비해 젓가슴 부위의 두께가 다소 크고 허리배부위는 너비·두께에 대한 연령적 치수차이가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20대 후반의 치수가 큰 결과로 허리아래 복부부분이 20대 전반여성보다 좀 더 굵은 체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길이항목은 젓꼭지사이수평사이길이에서, 드롭항

목은 젓가슴둘레-허리둘레항목에서만 20대 전반집단이 큰 값을 보여 대체로 상해거주 20대 후반여성은 젓가슴발달정도가 큰 반면 20대 전반 여성은 허리를 중심으로 엉덩이부위에 이르는 굴곡이 있는 체형으로 분석된다. 각도항목도 연령별 유의차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신체수직크기는 상해여성은 20대 전반과 후반 연령간에 유사하며, 치수 및 체형차이가 나타난 곳은 젓가슴과 엉덩이에 이르는 부위로 20대 전반 여성은 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형태가 다소 굴곡진 반면 20대 후반 여성은 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형태가 다소 뭉뚱하지만 젓가슴이 좀 더 발달한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3) 한국 전체지역 20대 여성

한국 20대 전반과 후반 연령집단별 신체치수의 차이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전체 33항목 중 27항목에서 연령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높이항목은 모든 항목에서 전·후반 두 집단 간의 연령적 치수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20대 전반여성은 키(1.12cm)를 비롯한 허리높이·엉덩이높이(1.57cm·1.00cm)가 후반연령집단보다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너비·두께·편평률항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가슴·허리·엉덩이 관련 너비·두께항목 모두 20대 후반집단이 다소 큰 값을, 허리·엉덩이편평률도 20대 후반집단이 큰 값을 나타냈다. 둘레항목은 엉덩이둘레를 제외한 5항목에서 모두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20대 후반 여성이 젓가슴둘레(-1.84cm), 허리둘레(-3.3cm) 등의 둘레 치수가 큰 결과를 보였다. 즉, 한국 20대 전반 여성은 후반여성보다 상반신의 너비는 좁고 두께가 얇은 체형으로 분석되며 이에 관련된 둘레항목 또한 대체로 20대 전반 여성이 더 작은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드롭항목은 모두 20대 전반집단이 큰 값을 보였다. 20대 전반여성들은 가슴부위와 엉덩이 발달 정도에 비해 허리부위치수가 작아 드롭치가 크게 나타나 20대 후반여성에 비해 허리가 매우 잘록한 체형임을 알 수 있다.

길이항목은 9개 항목 중에서 6항목에서 연령적 치수차이가 있었다. 어깨크기의 차이는 두집단간에 없으나 앞종심길이, 등길이, 목옆꼭꼭지점길이, 겨드랑위벽사이길이 등에서 20대 후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대 후반여성들은 수평크기가 커짐에 따라 대체로 가슴 관련부위 치수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각도항목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20대 여성의 비만정도는 대체로 보통의 체형으로 판정되며 20대 후반 여성이 비만도가 약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북경과 상해 및 한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전·후반의 체형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인체형의 완성기에 도달하여 타 연령대에 비해 체형변이가 적은 한국 20대 여성은 전반에 비해 후반에 이르러 연령증가에 따른 피하지방의 침착으로 상반신 몸통의 너비·두께·둘레와 관련된 수평크기 및 길이항목은 증가하여 상반신이 다소 비만한 체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20대 여성은 신체의 수직길이를 나타내는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은 다소 작았고 전·후반 연령에 따른 체형의 차이는 한국 20대 여성이 가장 두드러지고 북경, 상해의 순으로 그 차가 작게 나타났다.

2. 20대 전·후반 연령집단의 3개 지역별 체간부 신체계측자료 비교 결과

중국과 한국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전반과 후반의 2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북경, 상해, 한국 등 3개 지역 여성의 신체치수를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체형특징의 차이를 비교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중간의 신체계측치 비교를 위해 2004년도 한국 계측자료(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¹⁴⁾를 중심으로 중국계측자료와 일치하는 계측항목을 추출하여 총 33항목을 선정하였고 20대 전반과 후반 등 2개 연령 집단별로 3개 지역 여성들의 신체계측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test와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를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1) 20대 전반 연령집단의 지역별 비교결과<표 2>

20대 전반 연령집단 내에서 3개 지역 간의 신체치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 높이항목은 3개 항목 모두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수차이가 나타났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한국 여성을 기준으로 중국여성을 비교하면, 중국(북경·상해)에 비해 한국 20대 전반여성들의 치수가 엉덩이높이를 제외한 키(-1.12cm ~ -0.68cm), 허리높이(-0.92cm ~ -0.69cm)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높이는 중국 20대 전반여성이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해여성은 북경여성에 비해 키, 허리높이, 엉덩이높이가 다소 크지만 키를 기준으로 볼 때 허리와 엉덩이 위치의 비율이 거의 같아 수직적으로 유사한 외형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 여성들은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길이가 길어 결과적으로 키에 비해 다리가 짧게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너비항목 모두 지역별 치수차이가 나타나 3개 지역 여성들의 체간부 너비의 크기 및 형태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가슴너비의 크기는 상해, 한국, 북경여성의 순으로 컸고, 젖가슴너비는 한국, 상해, 북경여성의 순으로 컸으며, 허리너비 및 엉덩이너비의 크기는 한국여성이 중국여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허리를 중심으로 체간부의 상부인 젖가슴부위는 한국여성이 중국여성들보다 넓고, 상해여성이 북경여성보다 좀 더 넓으며, 허리아래 하반신 부분은 북경, 상해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더 넓은 결과를 보였다.

두께항목은 젖가슴두께와 엉덩이두께 2항목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여성은 중국여성에 비해 젖가슴 부위는 다소 납작한 반면 엉덩이부위는 두꺼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젖가슴두께는 북경·상해 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작고, 엉덩이두께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너비에 대한 두께의 크기를 알아보는 편평률의 경우, 젖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 모두 지역별로 유의 차가 나타났다. 젖가슴부위는 북경, 상해, 한국의 순으로 편평률이 높게 나타나 북경여성의 젖가슴부위가 너비에 비해 가장 두껍고, 한국여성은 가장 얇아 납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리부위의 편평률은 북경과 상해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작

아 한국여성의 허리는 너비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것을 알 수 있다. 엉덩이부위는 한국여성이 너비에 비해 두께가 두껍게 나타났다. 이상의 체간부 부위별 편평률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북경여성은 너비에 비해 엉덩이는 얇으며 젖가슴 및 엉덩이에 비해 허리가 더 두꺼운 편이고, 한국여성은 젖가슴부위에서 엉덩이에 이르러 점차 더 두꺼워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북경여성은 허리에서 체간부의 상부 부위가 둥근체형, 상해여성은 허리를 중심으로 둥글며, 한국여성은 상체에서 하체를 향해 내려갈수록 더욱 둥근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레항목의 경우 체간부 전체 6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젖가슴둘레(1.68cm)·허리둘레·엉덩이둘레(1.96cm) 등 모든 치수가 북경 여성이 비교적 크고 다른 항목은 대체로 상해와 한국여성이 비슷한 치수를 보였으나 허리둘레(-1.57cm)·엉덩이둘레(-2.04cm)는 상해여성집단이 북경·한국여성집단에 비해 치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를 기준으로 젖가슴과 엉덩이 실루엣을 파악하기 위한 드림치수를 살펴보면, 2항목 모두 3개 지역 간 치수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젖가슴둘레-허리둘레 치수는 북경, 상해, 한국 순으로 컸으며, 엉덩이둘레-허리둘레 치수는 북경·한국여성에 비해 상해여성의 치수가 작았다. 북경여성은 허리에 비해 젖가슴과 엉덩이부위가 굵어 볼륨감 있는 체형이고, 상해여성은 상체에 비해 하체가 가늘며 미묘한 체형이다. 한국여성은 미묘한 상체에 비해 하체가 굵어 허리를 중심으로 굴곡이 강한 실루엣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여성의 경우는 젖가슴보다 상부는 상해지역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늘며 하체부는 북경지역 여성과 마찬가지로 굵으므로 한국 20대 전반 여성들은 상체는 가늘고 하체는 굵은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길이항목은 7항목에서 지역별 치수차이가 나타났다. 앞중심길이(1.00cm ~ 0.77cm)는 북경·상해가 크고, 등길이(-0.53cm ~ -0.77cm)는 한국의 치수가 큰 결과를 보였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는 치수차이가 없고 겨드랑뒤벽사이길이는 북경·한국여성에 비해 상해(3.41cm)의 치수가 작았다.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는 북경이 가장 크고, 목옆어깨가쪽

길이어깨가쪽길이는 북경·상해 여성이 작은 값을 나타냈다. 북경과 상해의 20대 전반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어깨크기는 작고 앞중심길이와 목옆젓꼭지허리 둘레선길이는 더 길고 등길이는 짧아 상반신이 뒤로 젖혀진 정도가 크며 겨드랑뒤벽사이길이가 가장 작은 상해지역 여성이 젖힘정도가 더 큰 체형으로 해석된다.

<표 2> 20대 전반 연령집단내 지역별 계측치 비교 결과

단위 : cm

계측 항목	계측 부위	20대 전반			F-test	Duncan test
		북경 (N=347)	상해 (N=245)	한국 (N=501)		
높이 항목	키	159.28	159.72	160.40	3.92*	b ab a
	허리높이	99.30	99.53	100.22	4.46**	b ab a
	엉덩이높이	78.78	78.96	78.37	4.40**	a a b
너비 항목	가슴너비	26.90	27.82	27.20	23.76***	c a b
	젖가슴너비	25.93	26.12	26.87	46.35***	c b a
	허리너비	22.60	22.59	23.59	45.00***	b b a
	엉덩이너비	32.20	31.75	32.39	12.35***	b b a
두께 항목	가슴두께	18.40	18.13	17.89	2.48	
	젖가슴두께	21.68	21.33	20.66	22.17***	a a b
	허리두께	17.34	17.23	17.27	1.05	
	엉덩이두께	20.38	20.15	20.84	17.92***	b b a
둘레 항목	목밑둘레	37.39	36.30	36.50	38.97***	a b b
	가슴둘레	83.30	81.44	81.93	11.56***	a b b
	젖가슴둘레	84.34	82.66	82.28	11.81***	a b b
	젖가슴아래둘레	73.72	72.51	71.48	27.60***	a b c
	허리둘레	67.10	65.53	67.11	5.37***	a b a
	엉덩이둘레	91.04	89.00	91.31	19.06***	a b a
길이 항목	앞중심길이	33.19	32.96	32.19	29.37***	a a b
	목옆젓꼭지길이	25.23	25.08	24.96	1.97	
	목옆-젓꼭지-허리둘레선길이	40.52	40.00	39.72	13.36***	a b b
	겨드랑위벽사이길이	32.30	32.34	32.24	0.95	
	젓꼭지사이수평길이	16.96	16.51	17.27	17.86***	b c a
	목옆어깨가쪽길이	12.38	12.72	12.81	16.96***	b a a
	어깨가쪽사이길이	38.40	39.14	39.71	12.36***	b b a
	겨드랑위벽사이길이	36.48	33.07	36.36	172.80***	a b a
드롭 항목	등길이	37.56	37.32	38.09	15.87***	b b a
	젖가슴둘레-허리둘레	17.23	16.93	15.16	41.52***	a a b
편평률 (두께/너비)	엉덩이둘레-허리둘레	23.94	23.33	24.20	3.95*	a b a
	젖가슴편평률	0.84	0.82	0.77	170.08***	a b c
	허리편평률	0.77	0.76	0.73	35.67***	a a b
기타 항목	엉덩이편평률	0.63	0.63	0.64	35.67***	b b a
	몸무게	52.85	51.05	53.62	10.70***	a b a
	로리지수	1.31	1.25	1.30	8.72***	a b a

*p<.05, **p<.01, ***p<.001
Duncan test : a > b > c

몸무게와 로러지수는 북경·한국여성들이 크고 상해여성들의 집단이 작은 값을 나타냈다. 비만정도를 보여주는 로러지수 상으로 북경(1.30)·한국(1.30)의 20대 전반여성은 보통체형이며 상해(1.25)의 여성은 날씬하여 약간 마른체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북경·상해여성의 20대 전반 여성은 한국의 20대 전반연령집단보다 체간부의 수평크기인 너비는 작으나 가슴을 중심으로는 두께가 두꺼워 가슴과 허리부위는 동글고 이에 비해 엉덩이부위는 납작한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20대 전반여성은 허리를 중심으로 엉덩이 부위 치수가 크고 동근체형으로 3 연령집단 모두 보통체형의 비만정보를 보이거나 상해가 다소 마른체형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2) 20대 후반 연령집단<표 3>

20대 후반 연령집단 내에서 지역별 신체치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3>, 높이항목 모두 지역별 치수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키(-1.59cm)는 북경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허리높이(-1.34cm)·엉덩이높이(1.26cm)는 상해 여성집단이 큰 치수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키에 비해 북경과 상해의 20대 후반 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하반신의 높이가 커 하반신길이가 긴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너비항목은 가슴너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한국이 가장 큰 값을 북경과 상해는 비슷한 값을 보였다. 북경과 상해집단은 한국에 비해 체간부의 수평(횡적)크기가 작은 체형으로 해석되어 앞의 20대 전반 연령집단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두께항목은 3항목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젓가슴두께는 북경과 상해가 크고 허리두께는 북경과 한국이 크고, 엉덩이두께는 북경과 상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평률은 젓가슴·허리편평률은 북경과 상해, 한국 순으로 엉덩이편평률은 한국, 북경과 상해 순의 나타나 북경·상해의 20대 후반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가슴부위를 중심으로는 너비보다 두께가 큰 등근체형이고 엉덩이부위는 납작한 결과를 보여 앞의 20대 전반 연령집단과 동일한 체형정보를 보였으며 선행

연구¹⁵⁾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둘레항목은 모든 항목이 유의차가 인정되어 목밑 둘레·가슴둘레는 북경·한국집단이 크고 젓가슴둘레(1.70cm) · 젓가슴아래둘레(2.64cm)는 북경이 크고, 허리둘레(-2.26cm ~ -3.39cm)는 북경과 상해집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1.14cm, -1.77 cm)는 북경과 한국집단이 커 전체적으로 상해집단은 모든 둘레치수가 가장 작으며 북경집단은 가슴부위와 엉덩이부위 치수가 크고 한국집단은 허리부위를 포함한 엉덩이치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드롭항목을 보면 젓가슴둘레-허리둘레는 북경과 상해, 한국 순으로 컸으며 중국과 한국과의 차이는 2.52cm ~3.95cm로 큰 치수차이가 나타났으며 엉덩이둘레-허리둘레는 북경과 상해, 한국 순으로 1.57cm 정도의 치수 차가 있었다. 북경과 상해 20대 후반여성은 가슴부위는 크고 허리부위는 작아 한국 여성보다 더 잘록한 체형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길이항목은 5항목에서 치수차이가 인정되어 앞중심길이는 북경과 상해집단이 크고, 등길이는 한국, 북경, 상해 순으로 치수가 큰 결과를 보였고 겨드랑 앞벽사이길이는 치수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겨드랑 뒤벽사이길이는 북경(3.18cm)·한국(-3.30cm), 상해집단 순으로 큰 결과를 보였다. 목옆젓꼭지점길·아젓꼭지사이수평사이길이는 상해의 여성이 가장 작은 치수를 나타냈다. 목옆어깨가쪽길·어깨가쪽길이는 대체로 북경과 상해 20대 후반여성이 작은 값을 나타냈다. 즉, 북경과 상해의 20대 후반여성 또한 한국여성에 비해 어깨크기는 작고 상반신이 뒤로 젖혀진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몸무게와 로러지수는 북경·한국집단이 가장 크고 상해집단이 작은 값을 나타냈다. 비만정도를 보여주는 로러지수를 보면, 북경(1.37)·한국(1.36)의 20대 후반집단의 체형은 보통체형이며 상해(1.27)의 여성은 2지역 보다 약간 마른체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북경, 상해, 한국 3지역 모두 전반보다 후반연령집단이 비만정도가 더 크고 상해지역이 약간 마른체형으로 분석되었다.

북경·상해·한국지역을 비교한 결과 북경·상해여성의

20대 여성은 한국의 20대 여성보다 키는 작으나 허리와 가슴과 허리부위는 동글고 이에 비해 엉덩이부위는 반신높이는 높고, 상반신의 수평크기인 너비는 작은 납작한 체형으로 파악되었다. 북경·상해의 20대

<표 3> 20대 후반 연령집단내 지역별 계측치 비교 결과

단위 : cm

계측 항목	계측 부위	20대 후반			F-test	Duncan test
		북경 (N=161)	상해 (N=180)	한국 (N=313)		
높이 항목	키	157.69	159.69	159.28	6.69***	b a a
	허리높이	98.11	99.45	98.68	3.93*	b a ab
	엉덩이높이	77.58	78.84	77.37	6.45***	b a b
너비 항목	가슴너비	27.44	27.45	27.70	1.57	
	젖가슴너비	26.32	26.02	27.51	39.73***	b b a
	허리너비	23.02	22.83	24.52	44.48***	b b a
	엉덩이너비	32.37	31.72	32.46	10.16***	a b a
두께 항목	가슴두께	18.48	18.50	18.28	1.50	
	젖가슴두께	22.11	21.91	21.34	8.17***	a a b
	허리두께	18.07	17.44	18.46	10.42***	a b a
	엉덩이두께	20.23	20.06	21.19	20.60***	b b a
тол레 항목	목밑톨레	37.13	36.41	36.97	7.05***	a b a
	가슴톨레	83.93	82.47	83.82	4.51*	a b a
	젖가슴톨레	85.82	83.24	84.12	7.38***	a b b
	젖가슴아래톨레	75.75	73.11	73.44	12.35***	a b b
	허리톨레	68.16	67.02	70.41	15.83***	b b a
	엉덩이톨레	90.93	89.82	91.61	6.93***	a b a
길이 항목	앞중심길이	33.01	33.19	32.65	4.18*	a a b
	목옆젖꼭지길이	25.81	25.22	25.75	4.35*	a b a
	목옆-젖꼭지-허리톨레선길이	40.39	40.26	40.47	0.55	
	겨드랑위앞벽사이길이	32.18	32.67	32.34	2.49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6.82	15.78	17.58	49.48***	b c a
	목옆어깨가쪽길이	12.39	12.68	12.88	10.95***	b a a
	어깨가쪽사이길이	38.52	38.85	39.90	22.82***	b b a
	겨드랑위뒤벽사이길이	36.72	33.54	36.84	122.14***	a b a
등길이	38.00	37.53	38.52	14.08***	b c a	
드롭 항목	젖가슴톨레-허리톨레	17.65	16.22	13.70	84.68***	a b c
	엉덩이톨레-허리톨레+	22.77	22.79	21.20	10.08***	a a b
편평률 (두께/너비)	젖가슴편평률	0.84	0.84	0.78	100.04***	a a b
	허리편평률	0.78	0.76	0.75	15.19***	a b c
	엉덩이편평률	0.63	0.63	0.65	14.90***	b b a
기타 항목	몸무게	53.58	51.57	54.97	12.84***	a b a
	로러지수	1.37	1.27	1.36	17.93***	a b a

*p<.05, **p<.01, ***p<.001

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뒤로 젖힌 반신체형으로 상해여성의 젖힘정도가 더 큰 체형으로 해석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20대 여성 모두 비만정도가 보통인 체형이며 상해의 여성이 다소 마른체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의류기업들에게 이전보다 중요한 사항이 된 중국 성인여성의 신체치수 및 표준체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중국 성인여성의 체형특징 및 표준 체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치수 및 형태적합성이 우수한 중국 여성의복 생산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 북경과 상해지역, 한국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19-29세의 성인 여성을 연구표본으로 하여 지역에 따른 체간부의 신체치수 및 체형의 차이를 지역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북경·상해·한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전·후반의 체형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경지역의 20대 여성의 체형은 전체적으로 보통체형에 속하지만, 20대 전반에 비해 20대 후반 여성의 비만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해지역의 20대 여성의 체형은 20대 전반 여성은 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형태가 다소 굴곡진 반면 20대 후반여성은 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형태가 다소 밋밋하지만 젖 가슴이 좀 더 발달한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성인체형 한국 전체지역의 20대 여성은 전반에 비해 후반에 이르러 연령증가에 따른 피하지방의 침착으로 상반신 몸통의 너비·두께·둘레와 관련된 수평크기 및 길이항목은 증가하여 체간부가 다소 비만한 체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20대 여성은 신체의 수직길이를 나타내는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은 다소 작았고 전·후반 연령에 따른 체형의 차이는 한국 20대 여성이 가장 두드러지고 북경, 상해의 순으로 그 차가 작게 나타났다.

2. 20대 전·후반 연령집단의 3개 지역별 체간부 신체계측자료 비교 결과

북경·상해·한국지역을 비교한 결과 북경·상해여성의 20대 여성은 한국의 20대 여성보다 키는 작으나 하반신높이는 높고, 체간부의 수평크기인 너비는 작으나 가슴과 허리부위는 동굴고 이에 비해 엉덩이부위는 납작한 체형으로 파악되었다. 북경·상해의 20대 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뒤로 젖힌 반신체형으로 상해여성의 젖힘정도가 더 큰 체형으로 해석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20대 여성 모두 비만정도가 보통인 체형이며 상해의 여성이 약간 마른체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으로 3개 지역의 20대 전·후반, 즉 지역별·연령별 계측자료 비교를 통해 북경·상해·한국 지역간의 체형 및 치수차이를 고찰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체형 특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북경과 상해의 체형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중국수출대상 한국의류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표준체형의 치수정보 및 치수규격과 한국 20대 성인여성과의 체형 특징차이를 밝히기 위해 후속 연구로 요인 및 군집분석에 의한 체형분류, 인대개발, 의복원형, 의류패턴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향후 중국과 한국의 연령별·지역별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체형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1) “‘싸구려 차이나’, 명품으로 화장 고친다”(2008, 4,2), *중앙일보*, pp.E3.
- 2) “중국 20代 ‘바링허우 세대’의 재발견”(2008, 5,28), *조선일보*, pp.A18.
- 3) “중국 패션시장 분석 조사보고서”, (2006,12), *한국성유산업연합회*, pp.15-16, 88-89.
- 4) 장희경(2001), “중국 성인여성의 토르소 원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103.

- 5) 손희순 외 4인(1999), “한국과 중국조선족 여대생의 체형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pp.1228-1239.
- 6) 손희순 · 위혜정(2005), “중국 성인여성용 의류 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체형 연구(제1보)”, *패션비즈니스*, 9(5), pp.15-36.
- 7) 손희순 · 위혜정(2006), “지역별·연령별 중국 성인여성의 체형구성 요인과 유형 비교 연구”, *패션비즈니스*, 10(5), pp.58-73.
- 8) 손희순 · 장희경(2008), “A Study on Comparison of Upper Body Shapes and Types of Chinese Adult Women in Beijing and Shanghai”,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12(3), pp.72-86.
-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pp. 62-89.
- 10) 한국산업규격(1999), 의복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 KS A 7003, *한국표준협회*, pp.1-11.
- 11) 한국산업규격(1999),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 KS A 7004, pp.1-22.
- 12) Size Korea(2004), 인체측정표준용어집,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pp.9-135.
- 1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arment construction and Anthropometric Body dimensions, ISO 8559, 1989(E), pp.1-9
- 14) 제5차 한국인 신체치수조사사업보고서(2004), *산업기술자원부 기술표준원*, pp.206-326.
- 15) 권영자, “中國 浙江省地域 20代 女性の 體型分析에 따른 Bodice原型 設計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48~49.

접수일(2008년 4월 15일)

수정일(1차 : 2008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2008년 5월 26일)